

1917년 광주감옥 죄수 562명... 10년전보다 20배 늘어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16. 속속 들어서는 일제 경찰서·감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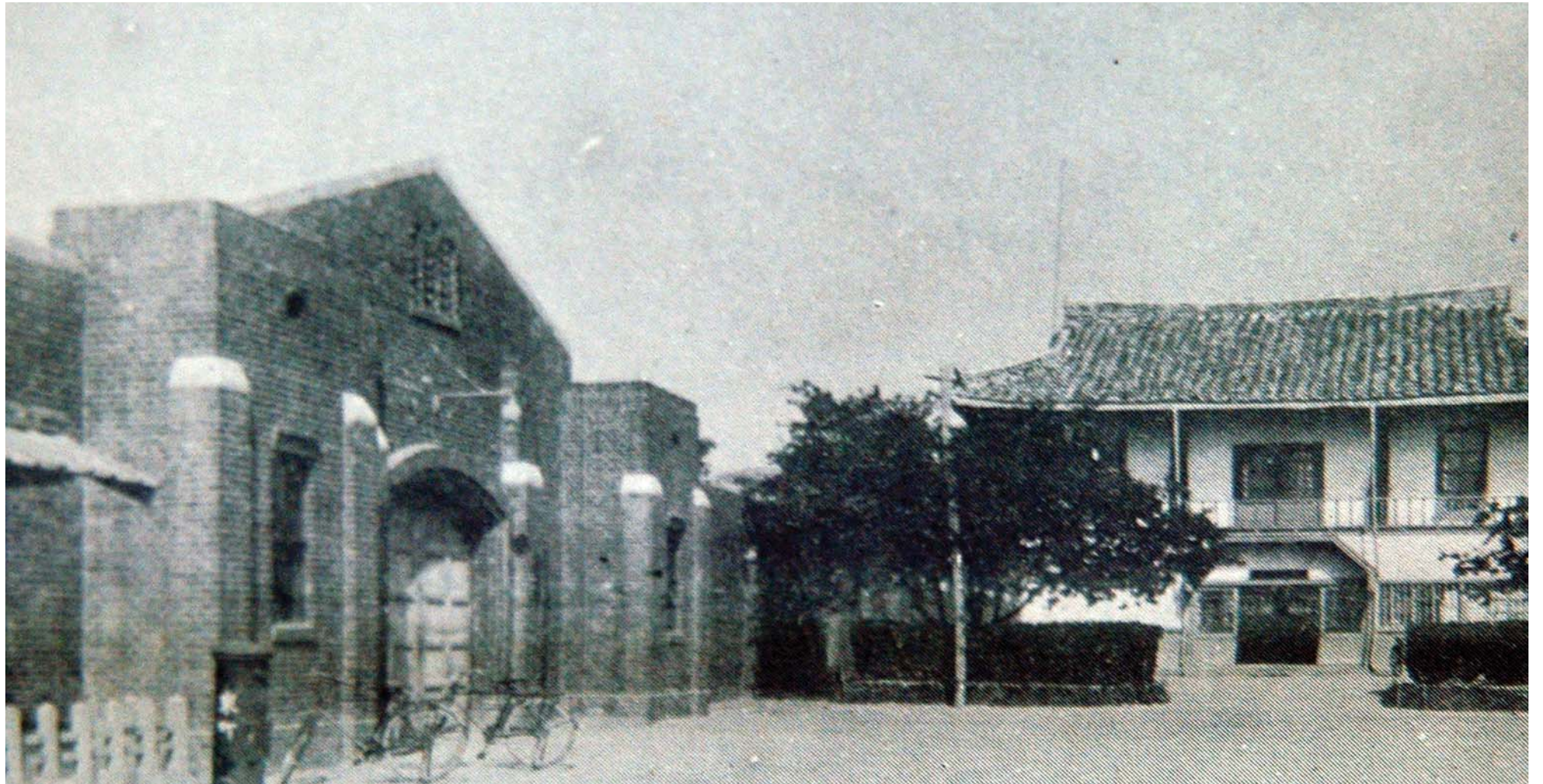
지금의 동부경찰서 자리의 광주경찰서는 1908년 1월 문을 열었다. 옛 전남도청과 함께 100년 이상 지금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1909년 개원한 자혜병원을 전신으로 하는 도립의원 건물. 이 병원이 전남대병원이 된다.



광주의 첫 극장인 광주좌. 광주극장의 전신이다.



1930년 지금의 동구 지산동에 있던 광주형무소 전경. 항일운동 등으로 붙잡힌 수형자들은 그 주변 농장에서 일을 했다. '농장다리'라는 명칭도 이 때문에 생겨났다.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항일운동은 지역 곳곳에서 들불처럼 계속됐다. 감옥 수감자 역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일본 군대와 경찰, 그리고 검사와 관사 등은 차별 철폐와 독립을 외치는 지역민들에게 '총검'과 '법'을 들이밀었을 것이다.

대한제국시대 광주의 감옥은 광주읍성 서문 내 저지대에 왜소한 온돌 수개 동으로 조성돼 있었다. 당시 죄인은 동문 내에 있는 토포청 구류장에 잡혀 서문 감옥으로 옮겨졌다고 '광주지방사경'은 전하고 있다. 1907년 12월 한국감옥관계 제정, 1908년 7월 16일 사무 개시, 1909년 10월 칙령 통감부 감옥관계 제정, 같은 해 11월 통감부 광주감옥으로의 개칭 과정을 거쳐 1910년 9월 한일 강제병합 후 10월 감옥관계 개정 칙령으로 조선총독부 광주감옥이 됐다. 1912년 5월 광주읍성 동문 외 서방면 동계리(지금의 광주법원)에 대규모 옥사를 건축해 이전했다. 1917년 광주감옥에는 죄수 562명이 있었으며 이는 10년 전인 1907년(30명)에 비해 거의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광주감옥은 부지 7666평, 건평 2729평의 규모로, 청사 및 사무실 2동 70여 평, 창고 및 적치 4동 60여 평, 감방 4동 183여 평, 공장 4동 149평, 그 외 건물 7동 66여 평 등이 있었다. 남자 감방은 1동, 여자 감방은 2동이었다.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일제는 신속하게 대한제국의 시스템을 장악해나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관과 경찰관이었다. 1905년 1월 일제의 경찰 사무를 감독하는 경무 고문을 설치하고, 11월 17일에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해 외교관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개항장 목포에 있던 영사관을 이사 청이 됐으며, 광주에 부이사청이 설치됐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1906년 2월 광주를 포함한 지방 관할부 소재지에 일본 경찰관이 배치된 고문지부가 설치됐다. 그리고 1907년 7월 24일 일제는 한일협약을 다시 체결,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내정에 대한 통감부의 지휘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다. 당시 지방의 대대본부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광주는 물론 수원·청주·대구·원주·해주·평양·북청에 있었다.

광주가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도청 소재지이자 전남 각 지역과 전북을 연결하는 경유지였으며 특히 격렬한 항일운동이 전남 곳곳에서 격렬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31년 5월 1일자 목포신보에 일본인 우체부는 일본인들이 막 광주에 진출하던 시기를 회상하며 "우편들을 등에 지고 능주에서 200명 정도의 폭도에 둘러싸여 목숨을 겨우 건져 도망쳤고, 그 후로도

폭도들이 온다면 잠옷바람으로 아밤에 2, 3리를 도망쳤던 일도 있었다"고 적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재판소 구성법 및 감옥관계가 발표되고,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1908년 8월 1일부터 각 재판소가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강제병합 이전인 데도 이미 사법권·경찰권·군권을 모두 상실하고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됐고, 광주 역시 1~2년 간격을 두고 일제의 경찰서, 재판소, 헌병대 본부 등이 들어서고 있다. 이들 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섰는지 살펴보자.

1908년 문 연 광주경찰서 동부경찰서 자리에 청사 신축

전남대병원 전신 자혜병원

1909년 개원, 1915년 이전

헌병대 본부 및 전라남도 경무부는 전남도청이 설치된 1907년 광주군청 청사 내에 사무를 보고 그 소재는 동광산정(동구 광산동)에 있었다. 이들 기관의 사무실이었던 관할부의 부속건물은 옛 전남도청 부지에 있었으며 면적 847평, 건평 218평으로, 16동의 건물로 구성됐다. 전라남도 경무부 산하에는 광주·목포·곡성·여수·제주·영광·강진·해남·영암·완도 등 10개 경찰서가 설치됐고, 헌병본대는 장성·영산포·장흥·순천·화순 등 5곳에, 이보다 규모가 작은 본견소와 분대 산하 파견소 및 출장소는 전남 지역 31곳에 산재해 있었다. 1908년 1월 문을 연 광주경찰서는 옛 대한제국시대 훈련청 소재지인 동문동(동구 대의동)에 자리했다. 이는 지금의 동부경찰서로, 옛 전남도청과 함께 10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경찰서는 1909년 공사비 7938원89전을 들여 부지 649평, 건평 113평의 청사를 신축했다. 1917년 당시 순사부장 3명, 순사 22명, 조선인 순사 2명, 순사보 32명 등 59명이 근무했고, 관할구역은 광주군 일원 15개 면이었다. 직접 관할구역은 광주·효천·지

한·극락·서방·석곡·우치면 등 7곳으로, 송정리 주재소가 송정리·동곡, 서창주재소가 서창·대촌, 임곡주재소가 임곡·하남, 나중에 설치된 연봉정주재소가 광주경찰서가 직접 관할하는 7개면 중 석곡·우치 등을 맡았다.

이 밖에 1909년 3월 설립된 전남종묘장은 원래 대한제국정부의 시설로 나중에 광주종묘장이라고 개칭하고 농상공부 소관이었으나,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지방관계 발표 후 전라남도 소관이 됐다. 이 종묘장은 서방면 신안리(북구 신안동)에 있었으며, 창립 당시에는 효천면 양림리에 대규모 토지와 함께 자리했으나 1914년 9월 이전에 나서 1915년 3월 신안면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전라남도 잠업 감속소는 1914년 4월 문을 열었는데, 공립 광주농업학교의 양잠실을 빌려 사용했고 같은 해 12월 서방면 유림리(북구 유동·임동) 국유지 차입 인가를 얻어 이전, 1915년 4월 1504평에 이르는 뽕나무 밭을 소유했다. 당시 전남은 양잠산업이 크게 발달했고, 이는 광주에 들어서는 이러한 관련시설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광주에 방직 및 방직공장이 대거 입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입업요표는 1909년 서방면 신안리 도종묘장에 인접해 설치됐다.

전남대병원의 전신인 자혜병원은 1909년 9월 26일 개원, 1915년 3월 1등 병실 및 X광선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병원 건물을 준공, 이전했다. 1만5000여평 부지에 건평은 700여 평으로, 양식 목조, 내부는 일본풍으로, 분관, 병실, 소독실 등 23개 동이 있었다. 제중병원은 효천면 양림리에 석조구조로 건립됐다.

지금의 유류가인 유류은 광주읍성 서문 밖의 부동정(동구 불로동과 황금동 일대)에 있었다. 예기를 양성하는 감종과 작부를 양성하는 을종으로 구분됐고, 1917년 당시 일본인 기생 22명, 조선인 기생 67명이 등록돼 있었다. 광주의 유일한 극장은 광주좌, 즉 지금의 광주극장으로 서성정(동구 총정로 5가)에 있었으며, 건평 120평에 300명을 수용했다. /원헌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움말 주신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사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